

發刊辭

이번 『冠嶽語文研究』 第26輯은 지난해 8월 31일 정년을 맞으신 金允植·閔丙秀 두 분 선생님과 올해 정년을 맞으신 高永根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정년을 기념하는 호로 편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년을 맞으시는 분들이 그 동안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여 오신 것을 귀중한 가르침으로 간직하고, 또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것을 한 전법으로 마음 속에 새기고, 또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학문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金允植 선생님께서서는 1936년 8월 10일 경남 진영에서 태어나, 1959년 본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셨으며, 본과에서 1962년에 석사학위를, 1976년에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68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한국현대문학 연구의 기초 자료에 대한 충실한 정리 및 체계화 작업을 수행함은 물론 이들 개별 자료들을 아우르는 내적 논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심 개념으로서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한국현대문학 연구를 한 단계 성숙시키셨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 안목에 보태어 작품을 세밀히 분석하고 작가의 정신적 변모를 추적할 수 있는 미시적인 분석력을 함께 보여 줌으로써 문학 연구의 한 전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 활동 및 현장비평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학자로서의 삶은 후배 연구자들의 모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내셨습니다만, 주요 연구서로는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1973), 『근대한국문학연구』(1973), 『한국근대문학사상사』(1984), 『이광수와 그의 시대』(1986),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1987), 『김동인 연구』(1987), 『염상섭 연구』(1987), 『한국현대문학사론』(1988), 『이상 소설 연구』(1988), 『입화 연구』(1990),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1992), 『한국소설사』(1993), 『한국문학의 근대성비판』(1993),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2』(1994), 『발견으로서의 한국문학사』(1997), 『이상문학 텍스트 연구』(1998), 『한국근대문학연구방법입문』(1999) 등이 있습니다.

閔丙秀 선생님께서는 1936년 8월 13일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59년 본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1979년 석사학위를, 1982년 『고려시대 한시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0년 5월부터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연구와 강의를 통해 국문학의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또한 1987년 9월부터 1991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을 지내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최초로 『한국한시사』를 저술하셨으며 한문교육연구회, 한국한시학회, 국문학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수준높은 연구 발표와 학회지 간행을 통하여 우리 나라 한문학 연구와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朴趾源文學의 연구사적 검토」(1978), 「古典詩論의 한국적 전개에 대하여」(1979), 「한문소설의 삽입시에 대하여」(1981), 「고려시대의 한시연구」(1984), 「조선전기한시의 전개양상」(1986), 「조선후기 시론연구」(1990), 「조선후기한시사의 흐름에 대하여」(1998), 「雄渾계 詩作의 특징에 대하여」(1999), 「退溪詩의 변이 양상에 대하여」(2000) 등 90여 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漢文講解』(1995), 『한국한시사』(1996), 『한국한문학개론』(1996), 『한국한시한문감상』(1996), 『韓國漢詩代表作評說』(2000), 『韓國漢文代表作評說』(2000) 등 2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高永根 선생님께서는 1936년 11월 6일 慶南 晉陽郡(현재 晋州市) 二班城面 大川里(속명 한글)에서 태어나, 1956년 3월에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신 후 동년 4월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뒤, 중간에 군복무를 하고 1961년 9월에 졸업하셨습니다. 이후 본과에서 1965년에 석사학위를, 1981년에 『中世國語의 時相과 敍法에 대한 研究』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68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현대 및 중세 국어의 형태론과 통사론, 개화기 이후의 국어학사, 텍스트과학 등 국어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30권에 가까운 저서와 130여 편에 이르는 논문, 수많은 편서와 교감서 등이 그 동안 선생님께서 학문에 바쳐 오신 열정을 가늠케 합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독일 방문을 통해 텍스트과학을 국내에 소개하고 보급하셨으며, 텍스트연구회(현 한국텍스트언어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97년부터 2년 동안

구결학회의 회장을 맡기도 하셨으며, 1999년 3월부터는 어학전문학술지 '형태론'의 편집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서로는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1981), 『국어형태론연구』(1989),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1993),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1999) 등을 들 수 있으며, 논문으로는 「현대국어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1965), 「중세어의 활용어미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1980), 「주시경의 문법이론에 대한 형태·통사론적 접근」(1982), 「능력성과 국어의 통사구조」(1986), 「불연속형태에 대한 논의」(1991), 「텍스트형성과 응집성의 문제, 어문학논총」(1997)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의 기념호로 세 분의 정년퇴임을 기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책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학과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을 모아 이 책을 바칩니다. 지난 30여 년 간 쉬임없는 열정으로 지켜 오신 학과에서 이제 비록 몸은 떠나시지만 동문과 제자들에 대한 끊임 없는 사랑만은 영원히 남아 저희 학과의 큰 뿌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國語國文學科長
任洪彬 삼가 씀.